

[부활, 우리의 소망 6]

아, 예수님께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절 특집대담 - 하용조 목사, 장선철 편집국장 / 1996

예수님께서 큰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 : 46).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운명하셨다. ‘나를 위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한 점 찌미었다.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기에 유대율법에 따라 죄수의 시체를 안식일까지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었다.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져 곧 처리되어야 했다. 해가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숨은 제자요, 산헤드린의 일원이며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섰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구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마 27 : 59, 60)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마 27 : 63, 64)

유대의 통치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심할 수가 없어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였다.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 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헌신과 봉사를 드리기 위하여 무덤을 찾았다.

그때였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며 말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마 28 : 5 ~ 7)

‘아, 예수님께서 장사된지 사흘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전인류에게 산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역사적 사건은 오직 우리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된다. 부활의 진리는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입증하는 산 증거가 된다. 이 엄청난 감격을 우리교회 담임목사인 하용조 목사와의 대담을 통해

여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는 「부활」을 놓고 그동안 온누리신문사에서는 ‘오순절에서부터 가상칠연’까지를 5차례에 걸쳐 특집으로 꾸며 왔습니다. 이제 「부활,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과의 대담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부활’이 주는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개략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올바르게 조명되어진다고 봅니다. 신, 구약에서의 가장 큰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시내산의 경우도 결국은 갈보리산의 모형으로서 조명되어질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사복음서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의 출생이 그의 사역이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귀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끝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끝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죄의 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죽음이 되었으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 그리고 죽음 등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부활은 바로 영생입니다. 부활을 맞은 우리 모두의 감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그 중요성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 한마디로 부활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뤄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복음의 초석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 분의 생애, 그 분의 기적과 이적, 또는 그 분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절정을 이룬 모든 것들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모두 104회 나와 있으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롬 10 : 9)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모두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멸망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바램

은 오직 이생 뿐으로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활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을 밝히시며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복음의 중심이요, 부활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바 부활로 인하여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고난과 죽음이었으나 그 결론은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흑암의 세력을 영원히 깨뜨리신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부활이 바로 우리 복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 예수님께서서는 전적으로 사람이셨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 4 : 4)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막 6 : 3) .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묘사들이 그 분이 인성을 지닌 온전한 인간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되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키와 지혜가 자라나고, 우리고 배 고프셨고 피곤하셨습니다. 옆구리를 찔리셨으며 장사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롬 1 : 4) 그렇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롬 8 : 18) .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 본 경험이 있는가?’ ‘과연 내가 질병, 사망 등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경험이 있는가?’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과 만나신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속에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 .

▲ 예수님께서서는 ‘빈 무덤 옆에 있는 동산’에서 그의 죽음을 비통해 하면서 쓰라린 가슴을 안고 있는 제자들에게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촌의 조그만 집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스승의 죽음으로, 그것도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한 스승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에 빠져 한자리에 모여 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임무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그리고 변치않고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의 고백에 답하기 위해 오십니다.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하시고 위안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주안에 머물러 있지만 아직도 갈 바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절망과 두려움이 극에 달하였지만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 앞에 생명과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확신을 위하여 고통받는 심령에, 당신을 미워할지라도 당신께서 쓰시기 위하여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앞에 나타나시어 소망을 주십니다.

- 네.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탄양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부활체, 성도들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성경에는 성도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눅 14 : 13, 14) 과 생명의 부활 (요 5 : 28, 29),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빌 3 : 10, 11), 더 좋은 부활 (히 11 : 35), 그리고 첫째 부활 (계 20 : 6)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다음 말씀은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더해 줄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 8 : 11)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 : 16, 17) .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

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전 1 5 : 5 1, 5 2) .

또한 성경은 구체적으로 부활체의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영적이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부활합니다. 우리 온누리 성도들 모두는 부활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온누리 1만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만이 가지는 특권이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나타내는 힘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 가지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이 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빛이 됩니다. 사랑이 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 5 : 5 5) 이런 고백을 통하여 사망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은 사명을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땅끝선교」를 위한 능력있는 삶을 살아 갑니다.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명과 함께 ‘우리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말씀 그대로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 6 : 1 5)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 8 : 1 9, 2 0)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 : 8) .

따라서 부활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부활은 전도의 시작입니다. 부활은 성도들 모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을 「선교부활주일」로 선포하고 또한 「전도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무척 감사한 일입니다. 「선교부활주일」을 보내며, 「전도집회」를 맞아, 또 부활을 맞아 우리 성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하셨듯이 오늘 우리 온누리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 주시며 축복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부활을 고백하고 그대로 믿으며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전 15 : 58) .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부활주일 예배」와 「전도집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나아가 이번 부활주일을 맞아 저는 온누리교회가 ‘진정으로 부활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기도회가 부활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목회가 부활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어 축복으로 주신 「땅 끝 선교」와 「이천명 선교사와 일만명 전문 사역자 파송」, 그리고 「거룩과 순결」의 비전이 새롭게 생명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부활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 온누리 성도님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에 직면하여 멀리 도망쳤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여 합심하여 ‘성령님이여 임하옵소서’라며 뜨겁게 간구하였을 때, 그들은 홀연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함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참으로 능력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성령님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 같이 능력있는 삶을 통하여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 끝까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온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뜨거운 성령님을 체험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한 곳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선교부활주일」을 통해, 그리고 「전도집회」를 통해 ‘부활하고자 하는 온누리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십시오.

나아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음성을 들으며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 : 20)

/ 대담 : 장선철 편집국장

* 출처 - 온누리신문